



KIA 외야경쟁 불 붙었다

오준혁

김다원·오준혁 시범경기서 공·수 활약

김, 만루홈런 등 14타수 7안타 타율 5할

오, 19타수 7안타 4타점...타율 0.368

수비서도 안정감 보이며 자리 선점 나서

‘호랑이 군단’의 외야 싸움에 불이 붙었다. 김다원과 오준혁이 싸움을 이끄는 두 축이다.

KIA 타이거즈의 외야가 예상 밖의 격전지가 됐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자원이자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면서 개막 엔트리를 노리고 있다.

시범경기 선수단 명단에서 외야수는 김다원, 김원섭, 김주찬, 김호령, 나지완, 오준혁, 윤정우, 이호신 등 총 8명이다. 명단에는 없지만 부상으로 캠프에서 중도귀국했던 신종길도 기회를 노리고 있다.

사연 많았던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바서는 김주찬을 빼고 확실하게 누가 주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혼전의 외야다.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김주찬·나지완·신종길이 ‘공격형’, ‘수비형’ 김호령·김원섭은 주루로도 어필했다. 윤정우와 이호신은 주루에서 강점을 보인다. 김다원과 오준혁은 애매한 경계에 있던 선수들이다. ‘성실형’인 두 사람은 공격과 수비 모두 2% 부족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경기에서 두 사람은 가장 뜨거운 방망이와 안정적 수비를 보여주면서 자리 선점에 나섰다.

삼성과의 경기가 열린 17일에도 두 선수는 좋은 타격감을 과시했다. 오준혁은 푼 타자로 나와 첫 번째 타석에서 1루수 앞 땅볼로 물러난 뒤, 두 번째 타석에서는 투수 직선타를 기록했다. 아웃은 됐지만 호수비에 막힌 매서운 타구였다. 오준혁은 세 번째 타석에서는 우익수 앞으로 타구를 보낸 뒤 재치있게 2루까지 진루하며 2루타로 5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다. 이번 시범경기 들어 두 개의 홈런을 포함해 19타수 7안타(0.368) 4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에서도 성장세를 보이며 자신의 가치를 높였다. 송구에서 약점을 보였던

오준혁은 지난 시즌이 끝난 후 이 부분을 집중 보강했다. 1루수로도 테스트를 받고 있다. 수비 고민이 풀리면서 타석에서의 여유가 늘었다.

오준혁은 “수비가 어느 정도 괜찮아 지니까 타석에서 공격에 몰두하게 된다. 이병규(9번), 유기처럼 나와 비슷한 장신 타자들이

치는 것을 많이 보면서 타격폼에 대해 생각했다”며 “내가 기존의 선배님들 정도는 아니지만 이리저리 감독님께서 써주시는 자리에서 마당쇠처럼 역할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다원의 방망이는 더 매섭다. 파워로는 인정받는 타자지만 공·수에서 세밀함이 부족했던 김다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범경기에서 김다원은 밀고 당기고 넘기면서 14타수 7안타, 5할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17일에도 김다원의 방망이는 시원하게 돌아갔다. 첫 타석에서 때린 강습타구가 유격수 김상수의 호수비에 막혀 아쉽게 돌아섰던 김다원은 6회 2사 만루상황에서 맞은 세 번째 타석에서 삼성 최충연의 직구를 강타해 좌중간 담장 넘어가는 만루포를 터트렸다. 시범경기 두 번째 홈런으로 7타점째를 기록했다.

김다원은 “스윙을 짧고 간결하게 바꾸고 맞추는 데 주력하는 타격을 하고 있다. 힘은 자신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시범경기에서 좋은 타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준혁과 김다원의 상승세 속에 지난 13일 넥센과의 시범경기에서 코엘로의 타구에 손목을 맞았던 김주찬도 다시 배트를 들면서 외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임준혁 1회 3실점... KIA, 삼성에 5-9 패

KIA 타이거즈가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경기에서 5-9패를 기록했다.

선발로 나온 임준혁이 1회부터 3실점을 하는 등 초반 마운드를 싸움에서 밀렸다. 패배 속에서도 3안타의 김주형과 만루포의 김다원 등 ‘동성고 친구’의 화려한 타격이 빛났다.

지난 10일 SK전에 이어 임준혁이 두 번째 선발 등판에 나섰다.

1회 임준혁이 첫타자 구자욱과의 승부에서 빠른 공으로 투 스트라이크를 만든 뒤 포크볼로 타이밍을 뺏으며 첫 아웃카운트를 삼진으로 장식했다. 그러나 전날 kt를 상대로 장단 21안타를 때려냈던 삼성 타자들의 기세가 매서웠다. 임준혁은 박해민·발디스·최형우에게 연속 3안타를 맞는 등 1회에 4개의 피안타로 3실점을 했다.

3회와 5회는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처리는 했지만 4회 김상수와 구자욱에게 연속 2루타를 내주면서 임준혁의 두 번째 선발 등판은 5이닝 7피안타 1사사구 3탈삼진 4실점으로 끝났다. 1회가 어렵기는 했지만 임준혁은 최고 140km의 직구와 슬라이더, 포크볼 등 51개의 공을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으며 과감한 피칭을 이어갔다. 존을 벗어난 공은 21개였다.

경기의 흐름은 6회 결정됐다. 시범경기 첫 등판에 나선 2년차 좌완 이준영이 1이닝 5피안타 1사사구 4실점의 부진한 피칭을 하면서 0-8까지 점수차가 벌어졌다.

그러나 6회말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시원한 공세가 펼쳐졌다.

오준혁의 2루타로 시작된 6회, 1사2루에서 3번타자 김주형이 이날

경기 자신의 세 번째 안타를 때리며 0의 행진을 꺾었다. 그리고 나지완과 박진두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2사 만루에서는 김다원이 타석에 섰다. 김다원은 2B-1S에서 최충연의 145km의 직구를 공략, 좌중간 담장 넘어가는 비거리 120m의 만루포를 만들었다. 이 홈런으로 5-8까지 추격이 이뤄졌지만 추가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그대로 KIA의 패로 끝났다.

KIA와 삼성은 18일 각각 양현종과 차우찬을 선발로 내세워 좌완 맞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6일 한화전 오후 5시 시작

KIA 타이거즈가 24-26일 야간 경기를 치르며 2016 시즌 개막에 대비한다.

오는 24일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시범경기 시간이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30분으로 변경됐다. 이날 롯데는 신규 조명탑을 시험 운영하고, 야간 경기 적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KIA는 26일에도 챔피언스필드 조명탑을 켜고 시범경기를 치른다. 이날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된 KIA와 한화의 경기는 오후 1시가 아닌 오후 5시에 시작된다.

KIA는 시범경기 이후 별도의 연습경기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롯데·한화와의 두 경기를 통해 야간 경기에 대비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연재 두번째 월드컵서 메달 몇 개 딸까

17~20일 리스본 대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향해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손연재(22·연세대)가 올 시즌 두 번째 월드컵 대회에 출격한다.

손연재는 17~20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대회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손연재는 첫날인 18일에 후프와 볼, 둘째 날인 19일에는 곤봉과 리본 연기를 펼친다. 4종목 합계 점수로 개인종합 메달 수상자가 결정된다. 이어 각 종목 상위 8명이 대회 마지막 날인 20일 열리는 종목별

결선에 출전한다.

손연재는 개인종합 예선에서 A조에 속해 있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시차 9시간을 반영하면 손연재가 출전하는 A조 후프와 볼 예선은 한국시간으로 19일 오전 2시 30분, 곤봉과 리본 예선은 20일 오전 5시부터 펼쳐진다.

손연재는 올 시즌 첫 국제대회인 '2016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개인종합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올 시즌 첫 FIG 월드컵 대회인 예스포 월드컵에서도 개인종합 은메달을 목에 걸며 자신감을 쌓았다.

손연재는 예스포 월드컵에서 개인종합 은메달에 이어 종목별 결선에서 볼 금메달, 리본 은메달, 후프 동메달을 따내는 기

염을 토했다. 이번 리스본 월드컵에서도 무더기 메달을 따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선수권 3연패에 빛나는 야나 쿠드랴체바가 부상으로 또다시 대회에 불참한 데다가 2인자인 마르가리타 마문(이상 러시아)과 멜리타나 스타누타(벨라루스)가 이번 대회 출전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세계 투톱인 쿠드랴체바와 마문이 빠지고 손연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한 명인 스타누타까지 불참하면서 이번 리스본 월드컵은 알렉산드라 솔다토프(러시아)-손연재-간나 리자트디노바(우크라이나)의 3파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또 그만큼 손연재의 메달 획득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대회를 지켜보는 관련 포인트 중

하나는 손연재가 이번 리스본 월드컵에서도 개인종합 최고점을 경신할 수 있느냐다.

손연재는 지난달 중순에 열린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72.964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경신한 데 이어 한 주 뒤에 열린 예스포 월드컵에서 73.550점(후프 18.400점, 볼 18.350점, 곤봉 18.400점, 리본 18.400점)을 찍으며 다시 개인 최고점을 갈아치웠다.

손연재는 리우 올림픽을 맞아 새 프로그램을 짜면서 자신에게 맞는 난도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영리하게 전략을 짰다. 지금까지는 손연재의 전략이 완벽한 성공을 거뒀다.

손연재가 이번 리스본 월드컵에서도 또 한 번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갈지, 또 자신이 목표로 한 18.5점대 이상을 찍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다. /연합뉴스

KPGA 을 코리아투어 12개 대회 개최

지자체 연계 전국투어 추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가 힘겹게 작년 시즌 대회 수를 유지했다.

KPGA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시즌에도 지난해와 같은 12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시즌 개막전은 4월 21일 대우폰베르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으로, 총상금이 지난해보다 1억원 오른 5억원이다.

5월 중에는 GS칼텍스 매경오픈과 매일유업오픈, SK텔레콤오픈, 넥스 헤리티지 등 4개 대회가 잇달아 열리며 6월에는 데샤프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어와 군산CC오픈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에 열렸던 매일유업오픈과 데샤프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어는 각각 5월과 6월로 일정을 앞당겼다.

8월 하순부터는 KPGA선수권대회(총상금 10억원)와 코오롱 한국오픈(총상금 12억원),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0억원) 등 국내 메이저급 대회들이 열린다. 10월에는 KJ Choi 인비테이셔널과 카이도골프 투어챔피언십이 예정됐다.

지난해까지 두 차례 개최됐던 바이네르 오픈은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대신 KJ Choi 인비테이셔널이 다시 열린다. 이 대회의 총상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KPGA는 침체된 투어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전국순회투어 창설을 추진한다. /연합뉴스